

인도네시아 여자 오픈 성료,  
송창근 대회장 “3년 내 세계 챔피언 배출”

MONTHLY **KOFA**

# 코파의

# 정음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25**  
2025/02

# 2025

# 2024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 인니 정부, 미국 관세 회피 위해 ‘중국에서 인니로’ 공장 이전 제안



▲인니 바탐 항나담 국제공항 제2터미널 기공식(사진=BP Batam)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래에서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 공장의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재차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가 21일 전했다. 정부는 특히 바탐섬의 경제특구(SEZ)가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산업부 파이솔 리자 차관은 지난 19일,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를 대체 생산 허브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탐섬 경제특구를 자유무역지대라는 특성을 활용해 기업들이 주요세금과 수입 관세를 면제받고, 전자, 섬유, 신발, 자동차 산업 등 미국의 관세에 특히 취약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다.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을 강화하고 글로벌 제품에 더 많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파이솔은

말했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장 인

센티브를 도입했다. 산업단지협회(HKI)의 산니 이스칸다르 회장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기회가 생겼지만, 인도네시아로의 공장 이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도 인도네시아에 오는 모든 제조 산업에 대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니는 지역 산업단지가 새로운 투자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간소화된 허가

와 같은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솔은 12월에 인도네시아 기업이 이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 산업 재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이 대외 무역 관세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60%의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즉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연방 기관에 무역 적자와 다른 국가의 환율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인도네시아 여자 오픈 성료, 송창근 대회장 “3년 내 세계 챔피언 배출”

송창근 인도네시아 여자 오픈 대회장은 지난 1월 26일 자카르타 근교 다마이인다 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인도네시아 여자 오픈 시상식에서 향후 3년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Indonesia Women's Open 2025(이하 2025 IWO) 대회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 개최된 네 번째 내셔널 타이틀 대회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송 회장은 시상식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회 개최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스폰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대회 위원회,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도네시아 골프 협회(PGI)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참석한 모든 내외빈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 대회장은 이 대회가 단순한 국내 대회를 넘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로 도약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년 안에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는 꿈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도네시아 골프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며 시상식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Indonesia Women's Open 2025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황유나 선수와 신태용 홍보대사는 한인포스트에 사인으로 감사를 전했다.

황유나 선수는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갖게 되어 기쁘고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응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그간 많은 응원 소식을 전해준 한인포스트와 한인동포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며 26일 밤 출국 인사를 대신 전했다. (haninpost 생활부)



▲송창근 인도네시아 여자오픈 대회장은 황유나 선수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2025.1.26.(사진 한인포스트)



###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7대 김종현 한인회장 취임 “경제·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의 지원 활동을 넓힐 것”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지난 1월 17일 대사관 강당에서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7대 한인회의 출범을 알리고 새로운 한인회장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는 한인회 임원과 한인사회 주요 인사, 각계 한인동포가 참석하여 출발선 앞에 선 김종현 한인회장과 집행부를 축하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김종현 신임회장은 폭넓은 활동으로 이미 한인사회에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한인회가 실질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화합하는 한인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며, 대사관도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임하는 박재한 전 한인회



장은 “지난 6년 동안 소중한 시절 인연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 인연은 언제나 나에게 귀하고 특별한 의미이며 함께 한인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라며 7대 한인회에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한인회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박재한 전회장에게 감사패를 수

여했다. 신임 김종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인회가 한인동포로서의 유대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한인회 플랫폼을 만들어 보편적인 정서로 동포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교 역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위



원회, 불우한 한인들을 위한 CSR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한다”며 “또한 한인들끼리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해결을 모색하는 한인중재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의 지원 활동을 넓히며, 성장 지향적인 커뮤니티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기엽 명예회장은 “제7대 한인회도 한인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화합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종희, 양태화, 이지완, 이정호 신임수석부회장과 임성필 사무총장의 위촉장 수여식도 열렸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서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동포사회의 다양한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한인뉴스]

##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2025 상공인의 날’ 개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CHAM)가 2025년 신년회를 겸한 ‘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난 1월 15일, 자카르타 스다유 인도 골프장(Sedayu Indo Golf, PIK)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대리와 이장근 아세안대표부 대사, 김종현 재인니한인회장 등의 내외빈과 회원사 임원 18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 골프 행사, 2부 회장상 수여, 신태웅 감독 감사패 전달, 기부식 등 알찬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강현 코참 회장은 “지난 해 수입규제 정책으로 많은



▲2025 상공인의 날 1부 행사 (스다유 인도 골프장)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참은 대사관, 유관기관과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팀코리아 플랫폼을 결성하였고, 외국 상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투자기업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올해도 우리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주인도네시아 박수덕 대사대리는 축사에서 “2025년 인니 내 우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2025 상공인의날 개최를 축하했다. 주아세안대표부 이장근 대사



▲코참 주최 2025년 신년회 및 상공인의 날 행사 (사진=코참)

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한인 기업인들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주아세안대표부도 기업인들의 애로 해소에 발벗고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코참 회장상은 박의래 연합뉴스 특파원과 윤제웅 코참 사무차장이 받았다.

기부식에서 코참은 짜까랑 직업기술학교 이수한 대표와 루마 크레아티프(Rumah Kreatif) 무함마드 아리핀(Muhammad Arifin) CEO에게 각각 5천만 루피아를 기부했다. 코참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있는 해외 경제단체로 현재 27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코참/자카르타경제신문]



www.f1logix.id

**LEADING LOGISTIC PROVIDER**

###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oor.  
Jl. 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859-3945-2622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 인니 예산 적자, 고비용 프로그램으로 3% 기준치 넘을 수 있어



▲자카르타 호텔인도네시아 로터리 환영 동상(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도 대통령 집권 100일을 맞아 공공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 프로그램이 계획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정부 부채 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7일 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웬 총 치아(Wen Chong Cheah)연구원은 지난 23일, 지금까지 대통령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내년 예측에 따르면 3% 이상의 재정 적자를 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년의 임기 동안 2029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미 재정적자 상한선을 올릴 의향을 밝혔고 올해 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인도네시아 국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전 프라보워 대통령은 재정 운용에 있어 보다 “대담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정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5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밝

힌 바 있다.

지난해 정부 부채는 약 40%를 기록했다.

**예산 편성 줄타기**

1997~1998년 인도네시아를 휩쓴 금융 및 통화 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2003년에 연간 국가 예산 적자를 GDP의 3%로, 누적 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한도 내에서 예산을 관리하려면 정부는 지출과 수입 창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프라보워 정부는 지금까지 수입 확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없이 대규모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8,270만 명의 학생과 기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보워의 대표적인 무상 영양식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460조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0월 취임 전 이전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2025년까지 71조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올해 시행

을 위해 100조 루피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는 2025년 말까지 프로그램을 완전히 시행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더욱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가 지출을 위한 재정적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3일, 모든 부처와 국가 기관에 총 306조 루피아를 조달하기 위해 삭감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파악하라는 대통령 지침을 발표했다.

프라사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같은 날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또 다른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간 300만 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 부문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역시 정부 예산에 크게 의존할 수 있다.

EIU의 치아는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지금 출처와 실행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부풀려진 내각 예산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자금 긁어모으기**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직관적인 방법은 세금 징수를 강화하여 정부 수입을 늘리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1%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대중과 기업을 설득했을 때 거의 실현될 뻔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막판 유턴으로 올해 75조 루피아의 세수를 추가로 거둘 수 있는 기회

가 사라졌다.

반면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 미결제 정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연간 예산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2024년 5월에 발표된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프라보워 정부 기간 동안 3,740조 루피아 이상의 정부 부채가 만기될 예정이며, 이 중 약 800조 루피아는 첫 3년 동안 매년 갚아야 한다.

치아는 특히 야심 찬 지출 계획과 제한된 수입 창출 조치를 고려할 때 부채 만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차환에 대한 베팅과 지속적인 글로벌 고금리가 궁극적으로 부채 상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상 급식과 주택 프로그램을 공공 지출에 의존하는 것이 단기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수입 창출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 재정적 무모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빠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얀도 사미린은 24일, 부채 증가, 고금리, 비우호적인 글로벌 상황이 “거의 완벽한 재정적 도전”을 초래했으며, 프라보워가 부채의 “하향적 죽음의 나선”을 피하기 위해 훌륭한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쁘르마다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빠르데데는 만기 부채가 많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금 조달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아는 지난 24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높은 승수 효과를 가진 생산적 지출에 부채를 사용한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저절로 줄어들고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더욱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살펴봐야 할 것은 부채의 양뿐만 아니라 부채의 용도도 고려해야한다면서 바오로에게 갚기 위해 베드로의 것을 빼앗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 인쇄

카다록 / 브로슈어 / 리플렛 / 신문 / 메뉴판  
 BOOK / 사용설명서 / 사보 / 회보 / 지명원  
 보고서 / 회사소개서 / 교재 / 각종 양식의  
 카렌다 / 명함 / 봉투 / 바인더 / 쿠폰 / 초대장  
 인박스 / 제품 패키지 /  
 스티커 / 라벨 / 행택 / 컴퓨터 커팅

021 3002 9087    021 3002 9091 / 9090  
 0858 9060 0962



##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 인니 정부, '말 많던' 수입정책 개정 움직임...기업들 환영 분위기



▲북부자카르타 판중 브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작년 5월에 최신 개정안이 도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수입 정책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는 국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장 폐쇄와 대량 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필요한 조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특정 분야의 상품을 수입할 때 기술 승인의 필요성을 없앤 무역부 장관 규정 제8/2024호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어떤 변화를 도입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부 기업들은 과거 규제에 도입된 수입 제한을 부활시키는 데 찬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라멘트원사 생산자협회(APSyF)의 레드마 기따위라와스파 회장은 지난 7일, 1월 초 이 문제에 대한 부처와의 논의에 참석했으며 섬유, 의류 및 신발 업계의 우려가 논의의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레드마는 자카르타포스트에 약 60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이 분야의 전반적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섬유 생산자들은 국제

통일상품분류(HS) 두 자리 코드인 50-63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더 엄격한 수입 통제를 요구했다.

수입 급증은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정제 테레프탈산(PTA)과 같은 주요 섬유 원료를 포함한 석유화학 같은 업스트림 산업을 약화시켰다.

전자 업계도 기존의 수입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전자기업가협회(Gabel)의 다니엘 수하르디만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최근 개정안에서 기술 승인을 없앤 것은 기업에 해롭다며 "제한이 있던 이전 규정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입 규정을 개정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무역부 장관 규정 제8/2024호를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은 수입품, 특히 불법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3월에 발효된 무역부 규정 36/2023호에 규정된 원자재 수입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기업들의 광범위한 비판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었다.

일부 기업들은 원자재, 보조재 및 자본재 수입을 완화한다는 최근 개정안을 환영했지만, 또 다른 기업들은 이 정책이 값싼 수입품의

유입을 촉진하고 현지 제조업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비난했다.

부디 산또소 무역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가 현재 수입 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임박한 변경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장관은 6일, 이번 수입 정책 검토를 환영하며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찬가지로 인력부 임마누엘 그롱안 차관도 지난해 12월 기업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난해 해고와 회사 폐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후 수입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비난하며 개정 요청에 동참했다.

인도네시아 소매 및 세입자 협회(Hippindo)의 부디하르조 이두안 자 회장은 10일,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합법적인 수입품의 진입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13일에 무역부와 만나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인 상품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등 소매업계를 위한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정만으로는 산업 개선에 한계 전문가들은 수입 정책 개정만으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타격을 입은 섬유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전무이사는 특히 섬유 완제품의 합법 및 불법 수입을 모두 통제하는 일관성 없는 무역 정책을 섬유 산업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파이살은 지난 10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한 무역 정책의 조화와 생산 비용 상승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고쳐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경제행동연구소의 로니 사스미다 선임 연구원은 10일, 정부가 보호주의 무역 조치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정책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재산업화를 위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인도네시아도 해외 제품과 실제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하스란 연구원은 10일, 산업계가 종종 수입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고품질 원자재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승인을 복원하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스란은 국내 경쟁력 강화가 세이프가드에 관계없이 수출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도 경제조정장관은 작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현지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이유는 값싼 외국 제품이 아니라 뒤쳐진 생산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연구 개발을 통한 성과 최적화 실패와 업그레이드된 기계가 포함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인도네시아, 20일부터 해외 구매자에게 탄소배출권 인증서 제공



▲수마트라 잠비의 대규모 팜농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일부터 해외 구매자들에게 탄소 배출권 증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가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 지역이지만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거래소는 국제 구매자를 위한 탄소배출권 증서의 첫 번째 오퍼가 20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주 초 자바 섬의 여러 발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248만 미터톤의 이산

화탄소 환산(CO2e) 배출량 감축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9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지만, 수요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시장은 대부분 유통적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OJK)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거래 가치는 506억4천만 루피아였으며 거래량은 90만8,018톤 CO2e에 달했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탄소 상쇄(carbon offsets)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 그는 인도네시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이전 목표보다 10년 앞당긴 2050년에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PT. YOU YEOUNG EMBROIDERY

### 최고수준의 품질과 뛰어난 광택!

100% 폴리에스터 자수사로 원사 구매부터 연사, 염색, 와인딩, 품질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명 EMB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현재 약 1,500여 가지 색상 약 25만권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수십 년 동안 거래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도**  
신발, 가방, 모자, 텐트, 장갑, 의류, 침대, 소파, 시트, 특수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제품명**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자수사 50D / 2합 (5,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재생사, Recycled) 75D / 2합 (5,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밀실 75D / 2합 (144M)
120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스판 밀실 60S / 2합 (5,000M~50,000M)
150D / 2합 (3,000M)	150D / 2합 (3,000M)	주문생산 : 인견사 120D / 2합

**PT. YOU YEOUNG EMBROIDERY**

Kawasan Industrial Millenium Jalan Millenium 12 Blok F2 No. 7 Kel. Peusar Kec. Panongan, Kab. Tangerang – Banten 15710  
Tel. +62 21-599-2386 Mobile. +62 822-4980-4125 Email. ufoemb@youyeoung.com



## 세계은행 · IMF,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5.1% 성장 전망



▲자카르타 SCBD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모두 인도네시아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흥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과제를 지적했다. 지난주 발표된 세계은행의 대표 보고서인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은 5.1%로 이전의 전망과 변동이 없다. 세계은행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인더밋 길은 16일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향후 25년은 지난 25년보다 개발도상국 경제에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향후 2년간 약 4%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은 개발도상국 경제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 인재, 에너지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개혁을 포함하는 “새로운 플레이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개발도상국의 부상을 도왔던 대부분의 세력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높은 부채 부담, 투자 및 생산성 증가세 약화, 기후 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이라는 무서운 역풍이 불어 닥쳤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세기가 바뀌면서 전 세계 GDP의 25%에 불과했던 개발도상국이 이제 45%의 파이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상품 수출의 40% 이상을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이 그룹으로 분류된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다. 세계은행 부수석 이코노미스트 M.아이한 코세는 같은 성명에서,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 속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이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미개척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대담하고 광범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세는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며, 이는 무역 효율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세관 절차 표준화

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IMF도 인도네시아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5.1%로 유지했는데, 이는 작년 전망치와 변동이 없는 수치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보고서에서 IMF는 신흥 시장에서 자본 유출의 원인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정서”를 꼽았다. 이 보고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의 완화와 기업 규제 완화가 투자 증가를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달러 절상은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 모두 2024년 연간 GDP 성장률이 재무부의 최근 추정치와 같이 당초 목표치인 5.2%보다 낮은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지난해 성장률이 5.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빠리와 르지요 총재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감소와 국내 소비 약화를 성장률 약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빠리 총재는 지난 15일 “가계 소비가 특히 중하위 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가용성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수요 및 공급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중진공 자카르타 ‘공유업무시설’ 무료 이용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이 자카르타에 마련한 ‘공유업무시설’을 현지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인 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중진공은 비즈니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업무시설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공유업무시설은 자카르타 중심상업지구(SCBD)에 위치한 Prosperity Tower 56층에 있으며, 고속 인터넷과 사무기기(프린터와 스캐너 등), 회의실과 개방형 업무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킹과 현지 시장 관련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비즈니스 관

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중진공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공유업무시설 사용 신청 양식을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신청이 승인되면, 이용 가능한 시간과 규정 등 안내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문의는 중진공 자카르타 사무소로 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  
**중진공 자카르타 사무소**  
이메일: kosme-jakarta@kosme.go.kr  
중진공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osme.go.kr G-SPACE  
접속 또는 gbc.kosme.or.kr  
정: 정대철 과장 62-821-2590-7343  
부: 니니 대리 62-812-8880-8595  
[태일리인도네시아]

### 코파의 힘 광고를 제안합니다.

코파의 힘은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 특징

코파의 힘은 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의 전문지로서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리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1 (mr. kang) 0821 1122 8827  
khong3000@gmail.com



**PT ALLJIUM GREEN NUSA**

### 정직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저압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LJIUM GREEN NUSA**

#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1억 기부 “인도네시아 학생들 학업 지원”



▲(왼쪽부터)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Setiawan Andrea Marjorie 학생, 승은호 코린도 회장, 이종수 국제캠퍼스 부총장, 언더우드국제대학 Khansa Qanita Amira 학생 (연세대학교 제공)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동문인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1일 연세대 국제캠퍼스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다. 승은호 회장은 “인도네시아 출신 학생들을 위해 국제캠퍼스에 공간 마련 등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고 밝히며,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수 국제캠퍼스 부총장은 “승은호 회장님의 뜻에 따라 국제캠퍼스 내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국가 학생들을 위한라운지 공간을 차례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라고 전했다. 승 회장은 1969년 인도네시아에 코린도그룹(KORINDO)을 설립해 현재 약 3만 명의 직원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선구자다. ‘코린도’라는 이름은 한국(Korea)과 인도네시아(Indonesia)를 합친 것으로, 두 나라의 연결고리를 상징한다. 그의 기업철학은 인도네시아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연세대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적·학문적 가교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승은호 회장의 따뜻한 나눔이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리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 합변의 법률상식

###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 PT PMA 설립의 모든 것

이번에는 PT PMA 설립 절차와 필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PT PMA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신중한 준비와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PT PMA: 외국인 투자자의 필수 구조**  
PT PMA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사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투자 요건**  
외국인이 PT PMA를 설립하려면 최소 100억 루피아(약 9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과 장기적 사업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외국인 소유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위치가 지방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PT PMA 설립 절차: 단계별 가이드**  
**투자계획 승인 신청**  
첫 단계는 BKPM에 투자계획(Investment Plan)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사업 유형, 투자 금액, 예상 고용 인원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업 허가(OSS 시스템)**  
투자계획이 승인되면, 온라인 단일창구(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 허가와 같은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공증**  
사업 허가가 발급되면, PT PMA 법인 설립을 위해 공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증된 문서는 상무부에 등록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운영 허가 및 세금 등록**  
마지막 단계로, 지방 정부의 요구에 따라 추가 허가를 받거나, 세금 등록 번호(NPW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식으로 사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산업별 소유 제한 확인**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자법(Negative List)을 검토해야



변호사 함상욱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 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KEMEN-KUM 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동제협회(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합니다.

**환경 허가 및 지역 규정**  
제조업이나 대규모 시설 운영을 계획하는 경우, 환경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의 역할**  
외국인 투자자에게 현지 파트너를 요구하는 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건을 설정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틈스목금형(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 “자카르타 공무원, 일부다처 가능하다, 요건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일부다처가 가능하다는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규칙이 공표되자, 인권단체에서 반발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쿠 스피야부디 자카르타 주지사직무대리는 지난 1월 6일 자카르타 (남성)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둘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주지사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행정규칙은 ‘Pera-turan Gubernur (Pergub) Nomor 2 Tahun 2025 tentang Tata Cara Pemberian Izin Perkawinan dan Perceraian’에 명시되어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 소속 공무원이 일부다처를 원할 경우, 반드시 상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다처가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 △결혼한지 10년이 됐으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경우 △본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처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경우 △공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일부다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자카르타 국립개발대학교(UPN) 공공정책 분석가인 아흐마드 누르 히다야트는 최근 BTV 토론회에서 “이 규정은 일부다처제를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다처제를 막기 위한 더 엄격

한 요건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다야트는 “이번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은 1983년에 발효된 중앙정부의 일부다처제 방지 규정을 기초로 해서 1990년에 개정된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첫째 배우자의 건강증명서, 결혼하지 10년이 넘었으나 자녀가 없다는 증명서, 첫째 배우자의 동의서, 그리고 여러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입증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일부다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히다야트는 이어 “규정 발표 전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행정명령의 목적과 영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일부다처제 사례가 공무원의 혼외정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쿠 스피야부디 주지사직무대리는 “이번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바탕으로 더 엄격한 요건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2023년부터 논의된 결과물로, 법무부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연대당(PSI) 소속 자카르타 주의회 엘바 파르히 콜비나 의원은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규칙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일부다처제 관행을 허용하고 용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아디다스, 4분기 매출 19% 증가... ‘9조원’ 찍고 반전 성공

연 매출 12% 증가한 35조 원 기록

아디다스 4분기 매출이 통화중립 기준 19%, 유로화 기준으로는 24% 증가했다. 아디다스는 지난해에 삼바, 가젤 등 레트로 스니커즈를 트렌드로 부상시키며 브랜드를 재부팅하고 매출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연말 쇼핑 기간에 매출과 수익성이 강세를 보였고, 경쟁사 나이키의 부진에서도 반사이익을 얻었다. 아디다스의 지난 4분기 매출은 통화 중립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59억 6500만 유로(약 8조 9185억 원)고, 매출 총이익률은 5.2%포인트 증가해 49.8%에 달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5700만 유로(약 852억 원)로, 2023년 3억 7700만 유로(약 563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2024년 연간 매출은 통화중립 기준으로 12% 증가한



아디다스가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 사진:아디다스

236억 8300만 유로(약 35조 4170억 원)에 달했다. 수익성 또한 개선되어 매출 총이익률이 3.3% 포인트 상승하여 50.8%를 기록했다. 2024년 영업 이익은 2023년 2억 6800만 유로(약 3888억 원)에서 13억 3700만 유로(약 1조 9994억 원)로 증가했다. 비요르 굴덴(Björn Gulden)

아디다스 CEO는 4분기 및 연간매출실적에 만족감을 표하며 “현재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는 두 자릿수 성장세와 영업이익 개선으로 10% 마진 목표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중부자바 홍수 · 산사태로 수십명 사망 · 수천명 대피



▲중부자바주 북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곤달 지역에 폭우로 가옥 1천여 채가 침수됐다. [지역재난관리국]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십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주민들이 대피했다. 22일 안타라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중부자바주 북부

해안과 내륙지역에 내린 폭우로 강물이 제방을 넘으면서 빠갈롱 안군, 곤달군, 반자르누가라군 스마랑군 등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수색 결과 17

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부상자 11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현지 콤파스TV는 경찰과 군인, 구조대원들이 굴착기와 농기구로 마을 잔해를 뒤지며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구조 당국은 8명이 실종돼 이들을 수색 중이지만 이날 오후 들어 비가 계속 내리고 짙은 안개가 끼면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으며 22일 오전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통상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가 이어진다. 이 기간에는 산사태가 자주 발생해 산기슭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혁신적 탄소배출량 및 전기료 절감 실현

베트남 2공장의 현지 경험으로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 주요생산품목

- 급유식 공기압축기 (Oil-Type)
  -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인버터형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2단압축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 ~ 250kW (50 ~ 350HP)

-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Oil-free)
  -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2.2 ~ 40kW (3 ~ 60HP)
- 인버터형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kW ~ 450kW (50 ~ 600HP)
- 인버터형 오일프리 저압 공기압축기
  - Blower (0.4 ~ 1.5bar)
  - Low Pressure Compressor (1.5 ~ 3.5bar)

- 진공펌프 (Vacuum Pump)
  - 스크류 진공펌프
- 압축공기 제습장치
  -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
  -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 라인롤러
  - 에어필터

### PT. COMPKOREA TEHNIK INDAH

Ruko Karawaci Office Park, Pinang Utara, Panunggangan Barat Cibodas Tangerang, Ruko H-25 | Lippo Cikarang지점 | 한국본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127-14 (가재리 396-6) | 김태봉 법인장 : +62-811-932-689 E-mail : kimtb160@gmail.com / ptcompkorea@gmail.com | 홍창선 이사 : 082113702540 | M. +82-10-2504-6443 E-mail : jr@compkorea.com



# 아식스, 글로벌 스포츠 시장 제패 야심...2030년 매출 1조 엔 목표

인수·합병으로 '달리기 생태계' 확장...2025년 3대 시장 석권 승부수  
온라인 멤버십·마케팅 강화...수익성 개선, 업계 최고 목표

아식스가 2030년까지 매출 1조 엔(약 64억 달러)을 달성하고 글로벌 스포츠 시장 제패에 나선다. 아식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 온라인 멤버십 강화, 스포츠 스타일 브랜드 육성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토미나가 미츠유키 아식스 사장은 20일(현지시각)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매출을 1조 엔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 50% 증가한 수치로, 아식스가 글로벌 탑 스포츠 브랜드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식스는 '달리기 생태계' 확장을 위해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온라인 멤버십 프로그램 'OneASICS'를 강화하며, 스포츠 스타일 브랜드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식스는 2025년 일본, 미국, 유럽 러닝화 시장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M&A를 통한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식스는 마라톤 등록 웹사이트 운영업체, 스포츠 관련 서비스 기업 등을 인수하여 '달리기 생태계'를



▲일본 오사카의 아식스 매장. 사진=로이터

확장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미나가 사장은 "2025 회계연도에 달리기 생태계 확장에 수십억 엔을 투자할 수 있다"며 M&A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식스는 데이터 통합, 개인정보 보호 등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식스는 온라인 멤버십 프로그램 'OneASICS'를 강화하고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식스는 'OneASICS' 멤버

십 혜택을 강화하고,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

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스타일과 오니츠카 타이거 브랜드의 성공을 발판 삼아 거대 시장에 도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식스는 러닝화 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일, 오니츠카 타이거 등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스포츠 시장 전반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스타일과 오니츠카 타이거는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아식스의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식스는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스포츠 스타일과 오니츠카 타이거 브랜드의 마케팅

을 강화하고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스타일과 오니츠카 타이거 브랜드를 통해 패션 시장에도 진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식스는 M&A, 온라인 멤버십 강화, 스포츠 스타일 브랜드 육성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 시장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식스의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 전략이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글로벌이코노믹]

## 슈프림 x 나이키 SB 덩크 로우 '블랙' 퍼스트룩 벌써 공개된 컬러만 다섯 개.

슈프림과 나이키 SB의 협업 컬렉션인 SB 덩크 로우 팩에서 새로운 컬러웨이가 공개됐다. '오션 포그', '화이트' 컬러웨이

에 이어, 이번 모델은 블랙과 레드 컬러의 조화로 완성됐다. 스니커의 어퍼는 고급스러운 블랙 스웨이드로 제작됐으며, 블랙 메쉬 텀이 적용되어 착화감을 높



였다. 또한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올블랙 어퍼에 레드 컬러의 삭라이너가 더해져 강렬한

대비를 강조했다. 그리고 앞서 공개된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힐 탭에는 흰색 스티치로 새겨진 슈프림의 창립 연도 '94' 자수 디테일이 추가됐다.

해당 스니커는 슈프림과 나이키 SB 덩크 로우 컬렉션 중 하나로, 오는 2025년 5월 출시될 예정이다.

[HYPERBEAST]



# 디젤 발전기

#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 ABC마트 2024 ‘베스트 슈즈’, 기본템 강세 속 러닝화 판매량 ‘굉충’

컨버스 척테일러 올스타 코어, 4년 연속 가장 많이 팔린 슈즈 1위  
러닝화, ‘뉴발란스 408’ 1위...성장률 높은 아디다스 삼바 오리지널, 매출 600% 급등



2024년 신발은 컨버스 척테일러 올스타코어와 나이키 에어포스1 등 기본 스타일이 가장 팔렸고 러닝화 성장이 두드러졌다. ABC마트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발 판매율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패션계를 강타했던 드루어, 뉴클래식, 뎀코어, 러닝코어 등의 다양한 트렌드가 슈즈 스타일

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ABC마트는 2024년 신발 트렌드를 이끌었던 ‘운동화’, ‘러닝화’, ‘시즌아이템’의 주요 카테고리별 베스트 슈즈를 공개했다. ‘운동화’ 카테고리에서는 기본 스타일의 슈즈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급변하는 패션 트렌드 속에서 어떤 스타일이나 잘 어울리는 베이직 아이템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

었기 때문이다. 컨버스 ‘척테일러 올스타 코어’는 운동화 카테고리뿐 아니라 2024년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슈즈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어서 나이키 ‘에어 포스 1’이 올 화이트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2023년 대비 2024년 판매율이 높은 신발 역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의 ‘삼바 오리지널’ 운동화였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로 차별하고 단정한 스타일링이 유행하면서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이 전년대비 약 600% 급등하면서 2024년 전체 판매량에서도 Top3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삼바 오리지널’이 ABC마트 베스트 슈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은 러닝화 시장의 성장이 크게 두드러졌던 해였다. 러닝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달리기 열풍이 지속된 영향이다. ‘러닝화’ 카테고리에서는 ‘뉴발란스 408’이 1위에 올랐다. ABC마트 러닝화 전문 브랜드 써코니의 작년 매출은 전년대비 약 238% 늘어났다. 러닝룩을 비롯해 일상 패션에도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2023년 2분기에도 베스트 슈즈를 차지한 바 있다.

계절 슈즈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시즌아이템’ 카테고리에서는 클로그 슈즈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2024년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될 정도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통기성이 좋고 신고 벗기 편한 클로그 슈즈가 대세로 떠올랐다. 클로그 중에서는 크록스 ‘듀엣 맥스 II 클로그(Duet Max II Clog)’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 조절이 가능한 백 스트랩과 두툼한 굽으로 뛰어난 착화감을 자랑하는 신발이다.

ABC마트 관계자는 “2024년은 ‘클래식로의 회귀’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신발 트렌드 키워드로 실용성을 강조하는 베이직 아이템과 러닝화, 클로그 슈즈를 꼽을 수 있다”며 “ABC마트는 매장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패션 유행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멀티스토어의 강점을 살려 올해도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 정겨운 우리말

**되놈** : 여진족(북쪽사람). 원래는 여진족을 일컫는 순우리말입니다. (북풍을 ‘되바람’이라고 합니다.)

때놈은 1·4후퇴 이후에 생긴 방언으로 ‘중공군’에서 비롯되었지요. 표준어는 ‘되놈’

**길섬** : 갈의 가장자리. 예전에 노견路肩이라는 일본어를 그대로 쓴 적이 있었지요. 요즘은 갯길이라고 하더군요.

예)학교 가는 길에 길섬에 잎새가 돌아 제법 파래서 봄이 자리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박목월, 구름의 서정)

**길손** : 먼 길을 가는 나그네 예)주막은 잠시 쉬어 가는 길손으로 매우 붐볐다.

**길차다** : 1)아주 미끈하게 길다.(



큰물이 나지 않은 덕분으로 발버드 제대로 영글고 채소도 길차게 자랐다.(김정한, <뒤틀기미나루>)

2)나무가 우거져 깊숙하다.(새들은 길한 뒷산에 동지를 틀고 새끼를 깬다.)

**길카리** : 가깝지 않은 친척(참고) 곁쪽 : 가까운 일가붙이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외 50여권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기계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 포르투갈 슈즈 전,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더플라츠에서



포르투갈 슈즈 쇼케이스 인서울이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개최된다. 포르투갈 신발 협회(APICCAPS)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7월 성과에 힘입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완제품 수입과 OEM, ODM, 독점권, 라이선스 등 다양한

방식의 비즈니스 논의가 가능 하다. 포르투갈 슈즈생산은 유럽총 생산량의 약 90%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슈즈 강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액션 브론슨 x 뉴발란스 990v6 공개 개성있는 팝한 컬러로 완성됐다.



액션 브론슨과 협업한 뉴발란스 990v6 스니커가 공개됐다. 이번 협업은 세 번째로, 지난 2023년 출시된 두 가지 컬러가 스니커 마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이번 스니커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액션 브론슨이 직접 공개한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스니커는 뉴발란스 아이코닉 모

델 990v6에 팝한 컬러로 칠해져 개성있는 실루엣으로 제작됐다. 해당 스니커의 어퍼는 화이트 메시 소재로 뒤덮였으며, 머드가드에는 화이트 레더 소재가 적용돼 동일한 컬러임에도 색다른 매력을 자아냈다. 이어 오버레이는 핑크, 레드 등 강렬한 컬러로 채색됐으며, 슈레이스는 블루와 퍼플이 뒤섞인 혼합 컬러 톤으로 완성됐다.

액션 브론슨 x 뉴발란스 990v6는 오는 4월 중, 액션 브론슨 및 뉴발란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HYPEBEAST]

## 힘과 스피드를 위해 디자인된 조던 브랜드의 새로운 자이언 4



공간을 확보하고 자신 있게 움직이세요. 힘껏 도약하고 편안하게 착지하세요.

조던 브랜드의 새로운 자이언 4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의 플레이에서 돋보이는 힘과 스피드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되었으니까요. 쿠शल론 3.0 드롭인 중창으로 업그레이드된 로우 탑 실루엣에 포물선형 에어 줌 스트로벨을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탄력 있는 이중 쿠셔닝을 선사합니다. 이로써 도약할 때는 우수한 반응성을, 착지할 때는 폭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컴퓨테이션널 디자인이 적용된 밀창은 탁월한 코트 감각을 선사합니다. 마모되기 쉬운 부위의 내구성을 높이고, 가장 필요한 부위에 접지력을 더했습니다.

자이언 4는 기존 시그니처 모델의 반응성과 고정력, 충격 보호 기능을 바탕으로 농구선수

에서 다음 동작으로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실루엣은 자이언 3의 드롭인 중창 구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이언이 선호하는 즉각적인 반응성과 폭신한 착지감을 선사하면서도 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운동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발의 핏을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다마스쿠스 스틸 컬러웨이와 출시 예정인 머드 투 마블, 포지드 인 파이어 스타일은 기존 시그니처 실루엣의 모티프를 발전시킨 것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매리언에서 NBA까지 '역경을 딛고 빛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온 자이언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이언 4 라인업에 클래식한 룩을 더해줄 화이트 앤 블랙 컬러웨이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실루엣은 곧 Jordan.com과 일부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산업용 보일러

‘ 한국기업, 중국생산공장, 가성비 ’  
 ‘ 한국 노동 보일러 No 1 ’  
 ‘ 한국 소각 보일러 No 1 ’  
 ‘ 한국 관류 보일러 No 1 ’

**PT. YUSUNG JAYA ABADI** 인니 30년 보일러 판매 및 유지보수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 Pos Bitung Tangerang

이광선 이사 : 0812 100 77732(WA) / 유인대 대표 : 0811 834 398

## 이재용도 즐겨찾는다는 신발... 프리미엄 전략 나이키·아디다스 제치나



▲photo 스케쳐스

글로벌 신발 시장에서 실용성과 가성비를 앞세운 스케쳐스가 급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고가 전략과 기술 집약적 제품에 집중한 사이 스케쳐스가 실용적인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덕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케쳐스는 지난해 매출 80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를 기록하며 글로벌 신발 제조업체 3위로 자리 잡았다. 같은 기간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각각 26%, 13.9%의 주가 하락을 겪은 반면, 스케쳐스는 85.4%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스케쳐스의 성공 비결은 단연 실용성과 가성비를 내세운 제품 전략이다. 스케쳐스는 기술 개발과 스타 마케팅 대신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며, 편안함을

강조한 제품군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즐겨 신는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은퇴층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부모 세대에겐 큰 인기를 얻었다. 대표 제품인 '핸즈 프리 슬립온 슈즈'는 손을 쓰지 않고 신을 수 있는 편리함으로 주목받았다.

반면,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과 스포츠 스타 마케팅에 집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100달러 미만 제품 비중을 줄인 점이 스케쳐스의 시장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스케쳐스는 올해 매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어갈 전망이다. 스케쳐스의 존 반데모어 CFO는 "우리는 화려한 전략

대신 편안함과 접근성을 강조한다"며 "다른 대형 브랜드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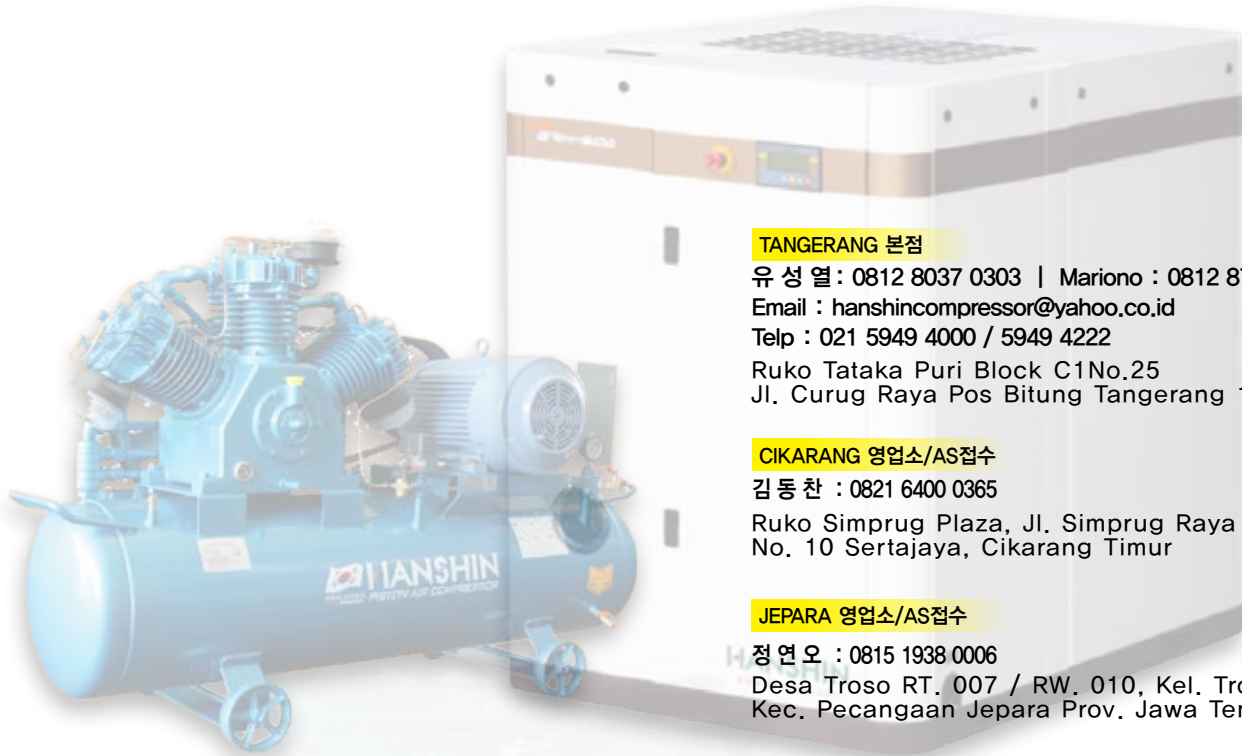
한편, 나이키는 지난해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반등을 꾀하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스케쳐스와 같은 실용적 제품과 가격 전략이 소비자층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어 향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스케쳐스의 성장세가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가 스케쳐스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주간조선

# HANSHIN

## 에어 콤프레셔



###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